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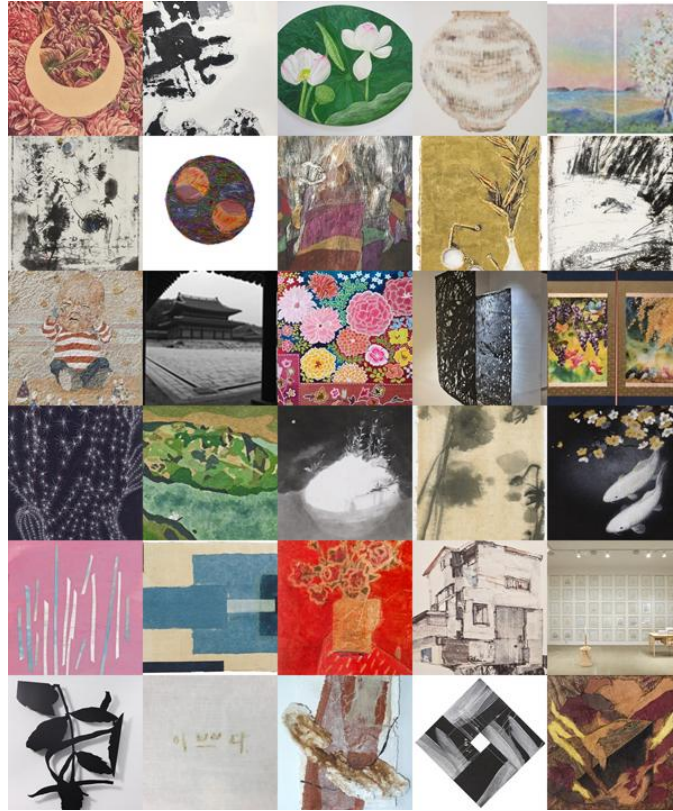
[제2018-43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 쪽
배포일시	2018. 6.12(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7141/exhibition@kccla.org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디지털시대-한지의 재발견

- ▶ 전 시 명 : 디지털시대-한지의 재발견
- ▶ 일 시 : 2018.6.22(금)-7.6(금)
- ▶ 개 막 식 : 2018.6.22(금) 저녁 7시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 ▶ 참여작가 : 고은주, 구모경, 구지연, 김보영, 김정수, 남빛, 박성환, 배정연, 서수영, 서용, 송지은, 신빛, 신지원, 신학, 심유림, 안예환, 안종임, 유영경, 유희승, 윤형선, 이명임, 이승철, 이연형, 장은우, 조소희, 조진희, 최우진, 최지원, 홍순주, 황지현 등 30명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8년 LA한국문화원 갤러리 전시 공모전 LA Art Project 세 번째 전시로 6월22일부터 7월6일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디지털시대-한지의 재발견> 전시를 개최한다.



종이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문명과 사상, 종교와 예술을 표현하고 보존, 전승하는 탁월한 매체로 이용되어 왔다. 종이라는 단순한 물질이 인간의 역사와 문명을 저장하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종이가 여러 다른 재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기록 매체 라는 사실이다. 기록은 문자 언어 발견의 산물이며, 종이는 그 바탕이 되는 재료이다.

한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이를 총칭하는 것으로 '닥나무'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었다. 한지는 한옥의 주재료인 벽지와 창호지로 사용되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공예 기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용도의 생활 용품과 장식품을 만드는데도 활용되었다.

한지는 자연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공정은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한다. 닥나무의 단단한 껍질을 삶고, 벗기고, 말리고, 짓이기고 등 복잡하고 힘든 수작업을 통해 질기고 멋스러운 한지를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아날로그식 제조 공정은 오늘날의 기계 문명 시대에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첩단의 매체를 표현재료로 도입하는 현대미술에서도 인기있는 소재이다.

이번 전시에는 한지의 특성을 활용하고, 독특하게 해석한 작가 30 명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 전시에는 한지를 바탕으로 제작한 드로잉, 수묵, 채색 작품들 외에 한지를 활용한 사진, 콜라주 등을 비롯하여, 동양 미술에서 공간 구성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두루마리와 한지의 물성을 살린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한지는 오래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문화입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맥을 이어 온 한지를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멋진 작품으로 탄생시켜 우리 미주한인 동포들은 물론 타 커뮤니티 에게 한지와 더불어 우리의 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라고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은 언급했다.

<디지털시대-한지의 재발견> 전시는 2018년 6월22일(금)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7월6일(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최희선 323-936-3014로 하면 된다.